나주시,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95명 첫 입국

5개월 현장 구슬땀…농가 산재 보험료 · 언어소통도우미 지원

내달 말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 순차적 입국 총 532명 투입

베트남에 이어 몽골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나주지역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탠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환영 행사엔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몽골 아르항가이주 바트쳉겔군, 우기노르군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95명, 본국 인솔자, 고용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환영식과 더불어 경찰서, 소방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안내, 인권보호, 무단이탈방지 및 범죄예방,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교육을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이번 달부터 각 농가에 배치돼 계절 근로 체류 기간인 5개월 간 영농 일손을 보탠다.

산재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외국인등록 절차가 진행되며 고용농가 추천에 따른 근로 연장(3개월) 또는 재입국도 가능하다.

몽골 계절근로자에 이어 오는 4월 말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384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으로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532명이 영농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358명을 고용했으며 올해는 700명을 목표치로 세웠다.

나주시는 언어소통도우미 파견, 산재보험료 농가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나주시가족센터에선 근로자의 사고·질병 발생에 대비해 외국인건강카드를 발급·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먼 타국에서 온 몽골 근로자들이 선진농업 기술과 경험을 얻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분주한 영농 일손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목표를 이루고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 개미산 전망대 휴게음식점(카페) 운영자 모집

연양리 335-1번지 일원…프렌차이즈 커피 판매점 등 입점 가능

화순군은 26일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개미산 전망대에서 휴게음식점(카페)을 운영할 역량 있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미산 전망대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335-1번지 일원으로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화순의 아름다운 경관 관람과 더불어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문의 참가 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렌차이즈 커피 판매점 등의 입점도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2024. 4. 1.(월)까지 화순군청 건설교통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최저 제안 가격은 연 31,380,000원이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술 능력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를 거쳐 선정된 운영자는 계약 체결 후 3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1회(3년)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제안서 평가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건설교통실(061-379-3761)에 문의· 상담도 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새로운 소득작목 '만감류' 육성

옥과농협과 협력 연간 3억 원 자금조성, 만감류 농가 지원

곡성군과 옥과농협(조합장 구정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한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등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난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천혜향과 레드향 등 총 2종의 만감류 특화단지 2.8ha 조성했고, 올해는 만감류 재배단지 0.7ha를 확대할 방침이다.

곡성군과 옥과농협은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4년간 제주도 만감류 농업 마이스터를 초빙해 현장컨설팅 8회, 선진지 견학 6회, 사업 추진 협의회 13회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만감류 재배농가 확대와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재배 3년 만에 아열대성 작물인 천혜향 출하에 성공하기도 했다.

곡성군과 옥과농협은 협력사업으로 연간 3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목을 선호하는 청년농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5년간 농협이 지원해준다는 점도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에는 옥과농협과 만감류 재배기술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당일 김철민 마이스터가 참여, 오전 이론강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개별 컨설팅를 진행해 참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2년부터 '레드향' 시설재배를 시작한 정성호 씨(31)는 "기존 작목은 시장이 포화상태이거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새로운 작목에 도전해보고 싶었다"면서 "'레드향'은 시장성도 있는 데다 옥과농협에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 어린이프로방스 오는 30일부터 무료 개방한다

담양군이 30일부터 어린이 동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타세쿼이아랜드 어린이프로방스를 무료 개방한다.

군은 무료 개방에 앞서 매표소 이전과 안내판 설치, 진·출입로 정비 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담양 어린이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랜드에 넓은 잔디밭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조형물, 다양한 놀이기구와 생태환경으로 구성해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체험하기 좋은 곳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어린이프로방스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관람을 위해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동선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 제공

장성군 보건소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에 직접 전화(061-395-0199)하면 예약,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주치의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비와 치료비, 프로그램 참여 비용도 지원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불안, 우울 증상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날 포스코A&C